2022

Festival Festival

드리미학교 4기 박예솔 신앙과 배움, 삶과 공동체를 빚다.

Dreamy School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 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 2:20)

FIRST DREAMY LIFE

빚음·2022



박예솔

ABOUT ME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학교에 온 드리미 4기생이다. 드리미 공동체에서 변화되고 믿음의 확신을 얻으며 성장하고 싶다. 너무나 부족하고 드릴 것 없는 나이지만 그저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싶다. 앞으로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안에서 꿈을 키워갈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책 소개

이 책은 빚음 페스티벌 다음으로 만드는 책으로 드리미 학교에서의 두 번째 책이다. 첫 번째 책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빚음 페스티벌 이후 활동들을 추가해서 담았다. 빚음 활동을 포함한 한 학기의 대부분의 활동을 담고 있어 드리미학교에서의 첫 학기를 살펴볼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에 담긴 모든 글과 활동 내용에는 나의 생각들이 들어 있으며 나의 한 학기 생활들이 잘 담길 수 있도록 노력했다. 모든 수업에서 나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어서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단지 나의 생활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지만 이 책을 통해 자신과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할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빚음 festival



FIRST DREAMY LIFE

CONTENTS

01	∤ 사명 선언문 6
02	신앙에세이 9
03	빚음 - 언어빚음 소감문12 - 타임엔지니어링 소감문13 - 빚음 소감문16
	- 칭찬사전18 - 자아와 인생20
04	가치기초소양24- 정의에세이
05	3P71초소양- 3P창의활동 계획서
06	미리쓰는 '나는 배웠다'52
07	공동성결서약문54

01

사명선업문

사명선언문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

전 세계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예수 믿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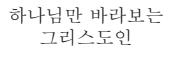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삶

가정 안에서 평안과 행복, 신앙심에 대해 책임을 갖고 있는 아내, 부모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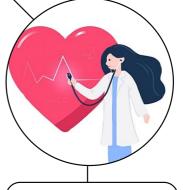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삶

아픈 친구들이나 배움의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감싸주며, 더욱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준다.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찾으며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랑의 삶을 산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삶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고 고민과 이야기를 들어주며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Action Plan

박예솔

-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
- 해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꾸준히 외국어 공부를 한다.
- 한 달에 한 번 신앙을
 더 깊게 배울 수 있는
 책을 읽는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 항상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도록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
-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에 대해 생각해본다.

-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삶
- 매일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정에 대해 알아본다.
- 매일 저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는다.
- 하루에 한 번 현재 가족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배운다.

-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삶
- 배움의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아이들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 배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삶

-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공감하는 능력을 키운다.
- 나의 감정을 파악하는 연습을 하며 감정 지능을 높인다.
- 아동 발달 심리나 청소년 심리에 관련된 책을 읽는다.

02

신앙에세이

² 신앙에세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전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6-8 -

드리미학교에 오기 전 나의 신앙생활을 생각해보면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 같다.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의무라고 생각하며 교회에 가면서 나의 진심을 담지 못했다.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에 대해서도 당연하게 생각했다. 스스로 깊게 생각해본 적도 별로 없어 제대로 된 나의 신앙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학교에서 무엇이 올바른 신앙인지를 배우고 나의 신앙을 찾을 수 있었다.

학교에 와서 처음 복음사경회를 듣고 신앙수업, 다함예배를 가지면서 나의 신앙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 전까지는 당연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혼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니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더 혼란스러워 졌었다. 그래서 복음사경회 후 가진 기도회 시간에 아무것도 모르고 할 수 없는 나임을 고백했다. 그리고 얼마 뒤 가진 복음특강 시간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조금 느낄 수 있었다. 복음특강을 하고 기도시간에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데 함께 하는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 공동체로 보내주셨음을 알게되었다. 하나님께서 나의 혼란에 대해 대답해 주시고 살아계심을 알려주기 위해 그 시간을 주셨다고 생각한다. 고난주간에 가진 기도회도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 너무 좋았다. 그 순간만큼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다. 아직 완전한 확신을 가졌다고는 하기에는 어렵지만 하나님이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것 같다.

합창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

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두 렙돈'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정말 가진 것 없고 부끄러운 나라는 부분에서 공감이 되었고 이런 나를 사랑해주심에 감사했다. 그런데도 내 전부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실망도 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찬양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앙수업에서도 관계와 교제의 차이에 대해 배우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하나님과 영원불변한 관계를 가졌음에 감사하게 되었고,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직 내가계속 다른 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관계를 더욱 쌓아갔으면 좋겠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죄의 기원과 결과에 대해 배우면서 죽음의 증상들을 듣고 내가 아직 하나 님과 떨어져 있음을 느꼈다. 불안과 두려움, 이기심과 탐욕, 미움과 증오, 우 월감과 열등감, 자기 연민과 자기 학대에서 내가 아직 잘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죽음의 증상들 하나하나가 모두 나에게 나타난 적이 있 어 내가 죄인임을 다시 인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증상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나는 내가 죄인임을 동의하고 있기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 있고 중요하다. 부활절 다함예배 때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 배웠는데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되고 느끼게 된 것 같다. 지금까지는 십자가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상징하는 단순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꼭 알아야 하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였다 다시 사시게 하셨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이 믿음의 본질임을 알게되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아야하지만 나도 아직 세상의 가치관에 더 가까운 것 같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사실에 대해 생각해보지도 않고 몰랐지만 배우게 되었음에 감사하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순종하고 섬기고 용서하는 삶을 의미한다. 이런 삶을 살기에 아직 너무 멀었고 힘들겠지만 내가 정말 변화되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지만 십자가에서만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겠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인도해주시기에, 생명과 그리스도의 길이기에 그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

03

빚음

- 언어빚음 소감문
- 타임엔지니어링 소감문
- 빚음 소감문
- 칭찬사전
- 자아와 인생

³⁻¹ 언어빚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 에베소서 4:29 -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 시편 141:3-

한국어의 특징으로 본 성경적 국어 사용

- 1. 청자 중심의 언어(나보다 상대방을 위한 언어)를 사용한다.
- 2. 세계 언어 중 높임법이 가장 발달한 언어이다.
- 3. 서술어가 가장 나중에 나오는 언어이다.
- 4. 감각적이고 섬세한 언어이다.

결론 - 나를 사랑하는 방법, 타인을 사랑하는 방법,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언어 빚음 느낀점

언어 빚음 수업을 통해 나의 언어 생활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한국어가 정말 감각적이고 섬세한 단어인 것을a알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말들을 함부로 쓴 적이 많았던 것 같다. 욕이 나쁘다는 것에만 집중하고 바른 언어생활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같다. 은어나 다른 사람들이 기분 나쁠 수 있는 말들은 앞으로 더욱 주의해야겠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모두 소중함을 잊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소중한 말들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입술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할 수 있는 말들을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할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지 않고 한마디 한마디에 소중한 말들이 가득하도록 노력해야겠다.

3-2 타임엔지니어링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 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 마가복음 14:37 -

시간에 대해 배운 소감문

타임엔지니어링 수업에서 시간과 공간, 차원에 대해 배웠는데 시간의 특성에는 선택성, 압축성, 초월성, 복제성, 계시성이 있다. 시간의 선택성은 시간은 사건의 순서이기 때문에 사건을 선택할 수 있어 시간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시간을 선택할 수 없고 그냥 흘러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의 선택성에 대해 배우고 나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정말로 선택하며 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의 삶은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시간을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함을 알게되었다. 시간이 우리가 사용하는 크로노스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인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 나는 나의 기준으로 생활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시간을 선택할 때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좋은 선택을 만들어내야 겠다.

시간의 압축성은 한 달 동안 할 것을 일주일 동안 하고, 일주일 동안 할 일을 하루 안에 끝내는 것처럼 사건을 빨리빨리 진행하여 시간을 압축시키는 것이다. 평소에 시간을 어떻게 알차게 쓸지 고민이 많고 제대로 되는게 없는 것 같아 시간관리에 대해 생각이 정말 많았는데 힘들더라도 시간의 압축성을 활용해서 폭발력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관리 방법을 알아도 뭔가 잘 안되는 것은 온전히 내가 열심히 안 한 것이고 좀 더 노력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은 핑계임을 잊지 않고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도 미리미리 해야겠다. 앞으로 시간의 압축성을 통해 더 많은일을 해보고 시간을 알차게 쓸 것이다.

시간의 초월성은 시간을 초월하여 미래를 미리 생각하고 그리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시간의 초월을 잘 활용하지 못한 것 같다. 미래를 생각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되었고 이 능력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래를 생각해봤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고 내 미래를 위해 구체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종종 미래가 아닌 죄에 대해 생각하는데 시간을 많이 쓴다고했는데 나에게도 해당되는 것 같다. 지금까지 나는 미래를 생각하는 것보다 죄와 관련된 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싶다.

시간의 복제성은 자신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갖게 하여 협력으로 더 큰 일을 이루는 것이다. 복제성의 원리를 이용한다면 상상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나는 이루어지지 못할까봐 상상하는 것을 두려워 했는데 시간의 초월성과 이어 상상하는 것을 즐겨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 복제의 원리를 직접 느껴본 적이 없어 궁금하고 더 배우고 싶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계시성에서는 나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공감이 되었다. 매번 나의 죄와 나쁜 생각 때문에 더 혼란스러워지고 스스로 힘들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지금부터는 나의 마음을 넓히고 싶고 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야 더욱 노력해야겠다. 하지만 노력한다고 지금 당장 나의 죄를 없애고 지혜를 다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나의 죄 때문임을 알고, 계속해서 노력하면 꼭 하나님과 나 사이의 통로가 생길 것이라고 믿는다. 앞으로 불필요한 생각을 하는 것을 줄여 나가야겠고 그 시간에 나의 미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며 새롭게 거듭나고 싶다.

차원에 대한 정리

0차원, 점 - 인간의 특성으로 정리하면 다른 사람과 교류 없이 자신만 생 각하는 사람

1차원, 선 - 집착으로 인해 주변을 살필 줄은 모르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이기는 것에만 집중하며 내 감정, 내가 좋아하는 것만 중요한 사람 2차원, 면 - 같은 또래, 세대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사람들을 살필 수 있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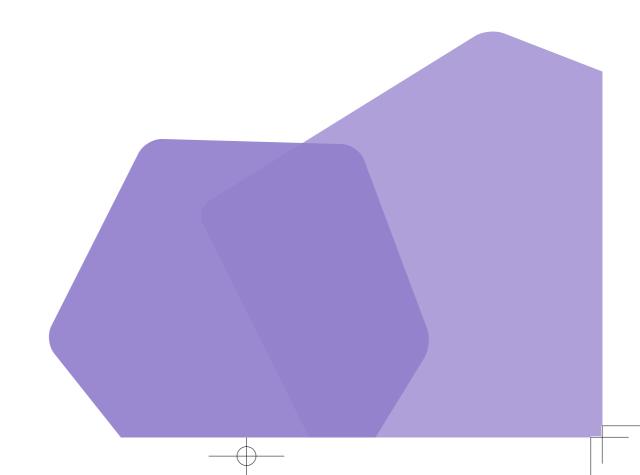
3차원, 공간 - 자신의 레벨과만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아닌 다른 단계의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음.

4차원, 공간+시간 - 미래를 생각하고 현재를 행동할 수 있는 사람.

5차원, 영적인 차원(시간을 초월) -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를 사는 사람. '영원'을 인식하면서 사는 사람.

차원에 대해 배운 소감문

4차원이 중요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상하다는 편견 이 있었다. 하지만 깊게 생각해보니 정말 미래까지 보는 4차원의 생활이 중 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가끔 4차원으로 생각한다면 미래보다 과거를 많이 생각했는데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4차원으로 살아 가는 것이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앞으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기 떄문에 지금까지 나는 3차원으로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4차원, 5차원까지 되려고 노력하고 시간에 대한 수업에서도 배운 것처럼 복 잡한 생각을 즐기는 것을 연습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4차원의 생각을 하며 앞으로 어렵거나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도 깊숙히 생각해보 는 습관을 가지고 생각의 힘을 키워야겠다. 마지막으로 5차원의 삶은 내 힘 으로만 노력해서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지금까지 5차원 에 대해 잘 모르고 생각해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 위해 5차 원이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5차원에 있는 사람은 밑에 차원으로 내려가서 1, 2, 3, 4차원에 있는 사람을 이끌어주는 것처럼 나도 지금 내가 할 수 있 는 만큼은 내려가서 불만만 갖지 않고 도와줘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 으로 차원에 대해 더 공부하면서 높은 차원의 사람이 되고 싶다.



³⁻³ 빚음 소감문

드리미학교 첫 학기 빚음 1,2 단계를 마치며..

빚음 1단계를 마치며..

빚음 기간을 통해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처음에는 새롭기도 하고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빚음 전과 변화되었다는 것은 확실히 느낄 수 있어 도움이 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많은 것을 배웠다. 지금까지 너무나 부족하고 죄인이었던 나를 마주하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나아갔다. 이 빚음기간에 얻은 것들은 하나님께 가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지금까지 배운 빚음을 잊지 않고, 더 배우고 빚어지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싶다.

빚음을 마치고 나라는 사람은..

한 학기 동안 빚음 수업을 듣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 나에 대해 새롭게 알게된 것도 많은 것 같다. 먼저 나의 장점들을 찾게 된 것같다. 칭찬사전이라는 수업에서 서로 칭찬해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을 찾아주고 칭찬해주어서 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나는 나름 성실하게 생활하게 노력하는 사람인 것 같다. 예전에는 나의 부족한 점들만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해줘도 잘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잘 생각해보니 이것도 나의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또한 아직 나는 부족한 것이 많고, 지금까지의 나는 힘듦을 회피하는 경향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것들이 많고, 종종 용기내지 못하는 나를 마주하게 되었다.

빚음을 마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빚음과정에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 조금 더 알게된 후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도 생각해보고 배우게 되었다. 선배들과 함께하는 성장과 배움 수업에서 선배들의 성장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서 나도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장점들은 더욱 더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의 부족한 부분들은 외면하지 않고 이겨내려고 노력하며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도와주며 함께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만 바라보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빚음을 마치고 생각한 앞으로의 삶..

빚음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성장인데 앞으로 드리미학교에서도 성장을 바라보며 생활하고 싶다. 기회가 있을 때 도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드리미학교에서의 시간이 정말 소중한시간임을 알고 어떤 곳에서도 열심히 생활해야겠다. 3년이라는시간 동안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것에 도전해보고 그에 따라오는힘듦보다 얻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나의 신앙적 고민도 나누며 같이 성장하고 싶고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도 최선을 다해 생활해야겠다.

빚음을 마치고 생각한 드리미학교 졸업의 모습..

드리미학교를 졸업할 때는 무엇보다 신앙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있고 드리미학교 밖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바라보며 생활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또 한 그 신앙을 바탕으로 스스로에게 있어서 성장해져 있었으면 좋 겠다. 겉에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더 단단해져 있 고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이겨내는 무습이 되어 있기를 바라다

3-4 **칭찬사전**

칭찬 사전은 다양한 칭찬들을 알아보고 서로의 칭찬을 찾아주는 활동이다. 소소하지만 수많은 종류의 칭찬을 알아볼 수 있고 자 신이 몰랐던 장점들에 대해 알게될 수 있는 활동이다.

01. 내가 고른 칭찬

내가 받았던 칭찬이나 받고 싶은 칭찬 고르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최선을 다하려 노력한다.

강요가 아닌 솔선수범으로 타인의 마음을 움직인다.

칭찬사전

다른 사람의 기쁨을 자신의 일처럼 좋아한다. 라인의 가능성을 봐준다. 갈등을 풀어가는 능력이 뛰어나다. <mark>감수성이 중부해서 작</mark>.

1 표현할 중 안다. 기쁨과 슬픔 등의 김정을 잘 표현한다. 기계나 도구를 잘 다룬다. 나, <mark>매고가 많다.</mark> 타인의 사람을 자연스레 받아들일 중 안다. 소소한 것들도 잘 기억한다. 개인도 모르는 타인의 강점을 봐준다. 타인의 긍정적인 면을 잘 찾아내어 울리고 높아준다. 순재주가 좋다. 타인을 대할 때 이해관계가 아닌 그 사람 자체를 계위하지 않는다. **멋시팔을 대할 때 무례하지 않고 예의바르다.** 어떤 일에서는 에게 잘못을 만화할 기회를 준다. 자신의 재능을 다른 사람과 나누가를 백업저야 할 대상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진다.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능력이 뛰어나다. 조언을 구하면 오는 사람이 많다. 자신의 문자를 지나고 있다. 통결한 날에 마음이 담긴 선물을 잘 한다. 소중한 게 편안함을 준다. 타인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이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mark>건물요가 아닌 송선주병으로</mark>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안다.

타인의 의견과 말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방응하다

02. 친구들의 칭찬

친구들이 나에게 해준 칭찬

공감을 잘 해준다, 타인의 관심과 사랑에 대한 감사를 잘 표현하며, 타인에게 편안함을 준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겸손하며 인품이 훌륭하다.

예의 바르고, 자신이 맡은 일을 책임감 있거 하는 모습이 있다.

겸손함, 성실, 절제를 겸비했다. 타인에 대한 무한한 인내심이 있다.

애교가 많고 신중하게 생각하여 실행한다.

항상 친절하고 친구들과 잘 친해진다. 남의 마음을 헤아리고 보살필 줄 알며 착하다.

칭찬사전을 하며...

칭찬 사전 수업을 하면서 나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었다. 나도 몰랐던 나의 장점을 찾을 수 있었고 정말 작은 것도 칭 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칭찬은 받는 사람 이 아닌 주는 사람으로부터 생긴다는 것을 알게되어 앞으로 작은 것이라도 칭찬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³⁻⁵ 자아와 인생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 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 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 에스라 9:12 -

행복을 포기한 삶

우리는 대부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쓴다. 지금 하고 있는 일 또한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는 모두 지금의 행복이나 미래의 행복을 위해 일을 하며 어쩌면 행복을 향한 집착이 있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나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고민한 적이 있다. 아무리생각해도 결론이 안났지만 이번에 자아와 욕구에 대해 배우며 그 답을 찾은 것 같다. 그렇기에 지금부터 우리의 자아와 욕구를 어떻게 생각하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나누어 보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생각보다 큰 욕심을 갖고 있다.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자신도 몰랐던 우리의속마음과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에 대해 깊숙히 알아볼 것이다.

먼저 욕구의 종류와 이 욕구들 속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욕구에는 생리적, 안전, 사랑, 존경,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 생리적 욕구는 배고픔, 갈증, 안전의 욕구는 육체적, 심리적 안전, 사랑의 욕구는 애정, 소속감의 욕구들을 말한다. 존경의 욕구는 자아 존중, 성취감, 자아실현욕구는 잠재력 발휘, 성장의 욕구들을 말한다. 이 욕구들 모두 있는 것이 당연

하지만 주로 생리적, 안전, 사랑의 욕구에 초점이 맞혀져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욕구를 가져야 하고 어떻게 해야 행복에 가까워 질 수 있을까? 일단 생리적, 안전, 사랑의 욕구들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발전할 수 없고 더 필요한욕구를 갖기 어렵다. 이 욕구들은 자신만의 이익을 얻기 위함 뿐만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얻고도 변화 없이 계속해서 똑같은 욕구에 갈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성취감을 얻고 성장하고자 하는 존경의 욕구와 자아실현의욕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존경과 자아실현의욕구는 자신의 변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욕구들에 집중함으로써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다. 생각해보면 나도 앞서 말한 욕구들을 더 크게 가질 때가 많았기에 내가 가져야 할욕구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욕구를 알게되었고 앞으로 존경, 자아실현의 욕구를 갖고 성장하고 싶다.

톨스토이 인생론 책에서는 다른 사람을 자신의 행복의 수단이고 생명의 모 조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는 행복에 대해 다시 생 각해보게 되었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정말 이기적이고 자신의 행복만을 위한다는 것이 충 격적이면서도 생각해보면 이 사실이 진짜임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에 나는 내 가 다른 사람의 행복도 많이 신경 쓰며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내 가 나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통해 내가 행복 을 느끼며 나의 행복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나 의 행복을 추구하면 행복을 얻기 어렵고 행복을 얻었더라도 그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닌 얼마 가지 않는 헛된 행복이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정답은 행복을 포기하는 순간 행복해질 수 있다. 이 말이 모순적인 말이고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내가 정말 행복을 느꼈던 순간을 생각해 보면 그 순간에는 행복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았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금방 잊어 행복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 있다. 나도 처음에 행복을 포기하는데 어떻게 행복해 질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되고 나에게 그런 경험이 없는 줄 알았다. 하지만 깊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 우리가 찾는 행복과 행복을 얻으 려고 애써 얻은 행복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그 행복에서 감사함을 느꼈다. 그 리고 인간 스스로 완전한 행복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행복은 하 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행복은 추구해서 얻어지는 것 이 아닌 행복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행복을 포

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은 행복을 포기하는 것이며 나의 이웃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나의 성장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집중해야 행복해 질 수 있다. 나의 완벽한 자아와 완벽한 행복을 추구해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음을 잊지 않고 행복을 포기하는 삶을 살고 싶다. 나는 인간이기에 계속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할 수 있고 지금도 어쩌면 행복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앞으로 나의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을 기억해야겠고 하나님이주시는 행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당신에게

행복은

무엇인가요?

04

가치기초소양

- 정의에세이
- 절제하는 삶의 원칙
- 성결에세이
- 정직에세이
- 평화에세이

⁴⁻¹ 정의에세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 시편 106:3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 잠언 21:15 -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에 살고 있을까?

지금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학교에서 정의에 대해 배우면서 이 질문을 생각해보게 되었다. 내가 배운 것을 나누면서 문 제를 고민해 보려고 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정의로운 모습이 많이 나타나지 만 정의롭지 않은 일도 수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확정 지 을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질문을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봐도 변화되는 것이 없을 수도 있지만 서로를 위 해 정의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또 이 질문을 통 해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 기 때문에 정의로운 사회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겉으로만 보이는 정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나도 겉으로 보이는 정의는 지키기 위해 정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겉으로만 보이는 정의가 아닌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 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고, 크리스천으로 서 지켜야 할 정의가 무엇일지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한다. 이를 알기 위해 정의가 무엇인지, 성경적 정의는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그 외에도 정의로운 사회란 무엇인가, 정의로 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등 정의에 관한 다양한 부분을 다 루어 보려고 한다. 이 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정의로운지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정의와 성경적 정의

정의로운 사회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정의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정의의 사전적 의미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바른 의의이다. 하지만이 뜻으로만 정의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 내가 생각한 정의란 살아가면서 서로를 위해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리인 것 같다.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고, 정의로워지기 위해 너무 애쓴다면 겉보기만을 위한 정의로 변질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올바른 도리를 유지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정의는 다른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스스로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정의를 지키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며 살아간다면그 피해가 똑같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의는 모두를 위해지켜야 할 기본적 도리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 성경적 정의를 정리하기 전에 내가 성경적 정의를 배울 때 공부 했던 내용을 적어보려고 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은 정의에 관한 몇 가지 느낀점이다. 첫 번째는 시편 146편에서 주님께서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하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모습을 보고 성경적 정의 대해 조금 느낄 수 있 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는만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돕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마음을 더 열고 나눔을 진실로 행하여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다음은 에스겔 18장 9절에 "나의 모든 율례대로 살아 가며, 나의 모든 규례를 지켜서 진실하게 행동하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 니, 반드시 살 것이다."라는 부분이다. 나는 이 말씀을 보고 '나'의 율례대 로에서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함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이 보지 않았으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 하며 넘어갔던 적이 많다. 스스로 반성하면서 성경적으로 정의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율례대로 사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또한 신명기 15장 10 절, 11절에서도 성경적 정의에 대해 배웠다. 10절에서 '줄 때에는 아깝 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라는 구절을 읽으면서 정의를 실현할 때 마 음가짐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매번은 아니지만 나의 기분이나 상 황에 따라 도와줄 때 가져야 할 바른 마음가짐을 삐뚤어지게 생각할 때 도 많았던 것 같다. 잘못된 마음가짐으로 나눈 것은 결코 도와준다고 말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도와줬다고 생각하면 사실을 부정한 적도 있다. 또 11절에서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 지는 않겠지만"에서도 '어차피 내가 도와준다고 다 괜찮아지는 것도 아 닌데' 라고 생각하며 내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도와준 적도 있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잘못된 마음가짐을 갖기 쉽지만 이것을 이겨내고 성경

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말씀들을 통해 얻고 내가 생각한 성경적 정의를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려운 사람을 진심으로 돕는 것이다.

정의롭지 않은 사회

그렇다면 정의롭지 않은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정의롭지 않은 사회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이 또한 내가 정의에 대해 배우면서 생각한 정의롭지 않은 사회이다. 정의롭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간단히 4가지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고 생각한다. 서로 존중하지 않는 사회,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는 사회, 폭력과 언행으로 서로에게 상처주는 사회, 거짓말로 인해 신뢰가 깨진 사회이다. 이 밖에도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회나 도둑질이 많이 발생하는 사회, 땅 투기로 인해 빈부격차와 교육격차가 심해진 사회와 같이 많지만 대표적인 4개를 다루어 볼 것이다.

먼저 서로 존중하지 않는 사회이다. 이 안에서도 장애인 차별, 저작권 침해, 인종 차별로 나눌 수 있다. 장애인 차별은 교통수단, 취업, 교육 등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 이것은 장애인을 존중하지 못하고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제든지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는 문제이고 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해야 하는 문제이다. 저작권 침해 또한 서로 존중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저작권 침해에는 불폄과 도용 등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존중하지 못해서 일어난다.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것을 존중하지 않는 것도 쉽게 넘어가서는 안되는 문제이다. 인종차별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많이 괜찮아졌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인과 아프리카계 사람 약 190명이 백인 경찰에 숨졌다. 이렇게 다른 인종을 존중하지 않는 일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다음은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는 사회이다.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은 방관자로 정리할 수 있다. 방관자의 대표 예시로는 학교폭력 방관이 있다. 우리는 학교 폭력이 일어날 때 쉽게 방관자가 될 수 있다. 심지어 교사들도 학교 폭력을 알지만 문제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방관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회사나 다양한 곳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보일 때 자신도 위험에 빠질까봐 방관자가 된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으며 정의롭지 않은 사회가 있다.

세 번째로는 폭력과 언행으로 상처주는 사회이다. 최근 가정폭력의 수위도 점점 높아지며 흉기로 위협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자신과 같은 사람을 심지어 가족인 사람에게 폭력을 행한다는 것이 정말 정의롭지 않은 사회인 것 같다. 또 데이트 폭력이나 학교폭력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데이트 폭력도 단순히 사랑싸움이 아닌 엄연한 폭력이고 남에게 상처주는 일이다. 학교 폭력 또한 폭행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여러 명이서 한 사람에게 폭력을 가한다는 것은 정의롭지 않은 사회에서 뺄 수 없는 일이다. 언어 폭력도 꼭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직접 가하는 폭행이 아니더라도 말로 상처주는 것은 더 오래 갈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는 거짓말로 인해 신뢰가 깨진 사회이다. 만약 나라에 대한 신뢰가 깨진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지도층 인사들이 비리로 인해 신뢰를 잃는다면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나라가 붕괴하는 경우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신뢰가 깨지는 것은 서로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정의롭지 않은 사회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방법, 성경적으로 정의로운 사회

위에서 정의롭지 않은 사회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더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장애인 차별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우리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아니라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포용할 수 있도록 변해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 그저 배려받고 약자의 위치에서 복지 서비스를 받는 것이아니라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향상시킬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저작권 침해에서는 사람만이아니라 다른 사람의 창작물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하고 인종차별에서는자신과 틀린 것이아닌 다르다는 것을 알고 서로 존중하도록 노력한다면 조금 더 정의로운 사회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다.

방관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어야한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고 언제든지 자신도 그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한다. 가정폭력, 학교 폭력, 언어 폭력 등 다양한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지 않고 도움을 청하고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데이트 폭력은 문제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하지만 잘못되었음을 알고 폭력의 늪에서 빠져나와야한다.

다음은 신뢰를 회복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방법이다.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계속 숨기기만 하면 불신만 깊어진다. 두 번째는 결과를 회피하려고 하면 안된다. 상황을 그저 넘어가려고만 한다면 상대방을 더욱 화나게 만들고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 세 번째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과를 해야 하고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인식하고 실패를 받아 들여야 한다. 이렇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정의로운 사회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경적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적 정의에 대해 배우고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나도 이번에 성경적 정의에 대해 처음 생각해봤는데 하나님 안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경적 정의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성경적 정의에 대해 이해했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따르다면 성경적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라는 구절이 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을 돕고 함께하도록 해야한다. 또 레위기 19장 11절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라는 구절이 있다. 이렇게 모든 것은 성경 말씀에 있고 성경을 따른다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따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조금씩 성경적으로 정의로운 사회에 가까워질 것이다.

정의와 정의롭지 않은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고 성경적인 정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 나는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 정의롭지 않은 사회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특히 성경적으로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아직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나는 앞으로 정의로운 삶을살기 위해 생각과 마음가짐을 바로 잡을 것이다. 겉으로 보이는 정의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지만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은 마음이다.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정의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 볼 것이다. 아직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지만 성경적으로도 정의로워지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절제하는 삶의 원칙

"자신을 다스리고 지배하여 나날이 강해지고 더욱 새롭게 변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한다. 화평함 속에 사는 사람들은 영혼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이다." - '그리스도를 본받아(토마스 아켐피스)' 中 -

내 삶에서 절제가 필요한 부분

쓸데없는 감정 중요하지 않은 생각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나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다른 사람에게 하는 행동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

빚음 활동 중 절제하고 균형잡힌 삶에 도움이 된 활동

- '가치기초소양' 절제 수업 중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의 일부분
- '가치기초소양' 절제 수업 중 나우루 공화국의 절제하지 못 한 사례
- 이음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었다.
- 내 몸 빚음 기간에 간식을 먹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었다.
- 아침운동 시간이 균형잡힌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었다.

절제하는 삶을 위한 원칙

- 1. 영원하고 당연한 것은 없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 에서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할 것이다.
- 2. 절제하기 어려운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생각해 볼 것이다.
- 3.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부분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치려는 의지를 가질 것이다.
- 4. 절제하지 않는다고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께 만족을 찾을 것이다.
- 5. 감정을 절제하기 위해 그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4-3 성결에세이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20:7-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 베드로전서 3:15 -

성결의 성경적 의미

- 거룩하고 깨끗한 것.
- 세상적인 것에서 분리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것.
-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결한 곳이다.
-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에 관한 말이기도 하다.

성결한 삶을 향해

성결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보통 성결에 대해 별로 생각해보지 않거나 틀에 갇힌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나도 성결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별로 없고 잘 몰랐는데 이번에 성결을 배우면서 더 넓고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먼저 성결의 성경적 정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그리고 성결에 대해 배운 후 내가 다시 정의한 성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점점 성결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성결하지 않은 것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오히려 성결을 이상하게 바라본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가 성결해지기 어려운 이유와 우리가 성결해져야 하는 이유를 나누어 볼 것이다. 또 성결이 무엇인지 알고 난 후 내가 성결한 사람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는 것을 느꼈다. 내 삶 속에서 성결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성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며 앞으로 나의 성결한 삶을 위한 방법을 알

아볼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결은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뜻이다. 세상적인 것에서 분리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나 거룩하게 된 것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또성결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결한 곳이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다. 성경에서 사용되는 성결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에 관한 말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을 때는 성결을 상실하기 쉬웠다. 그리고 성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다. 성결의 성경적 정의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만 이 말들로 성결을 다 이해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성결에 대한 정의를 내려 보았다.

먼저 내가 성결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주의 깊게 봤던 말씀들이 있다. '하나 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서 신을 벗으라'출애굽기 3장 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 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 로 행하니라' 여호수아 5장 15절. 이 말씀들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 해야 하고 성결을 지켜야 한다. 성결에 대해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가 정의한 성결은 세상적인 것과 다르게 살아가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성결이 왜 이러한 정의를 갖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내가 이 정의를 내린 것은 성결은 거룩한 것인데 죄에서 분리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성결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고 넓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 했다.내가 내린 정의를 하나하나 다시 풀어보면 일단 세상적인 것은 우리가 어 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시대가 변하고 시대를 지배하는 사상 들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적인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새로 운 사상들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생각과 관점에 영향을 끼치지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되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 느 순간 부모를 친구처럼 대하는 것,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하면 안된다고 하신 것이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해도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있다. 이 것들 외에도 세대에 따라 많은 것들이 당연해지고 있지만 이것들은 하나님께 서 말씀하신 것들이 아니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당연하지 않은 것 들이 당연해지는 것은 우리가 성결해지기 어려운 이유가 되기도 한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계속해서 변하고 변하는 속도도 빨라지며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뜻의 전달이 어려워지고 있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 갈 때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의 욕심을 계속해서 내세우고 자신의 뜻으로 살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에 유혹에 흔들릴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따르면 우리는 성결해질수 없다. 따라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성결한 삶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삶에서 성결이 필요한 곳에 알아보기 앞서 우리가 성결해야 하는 이 유를 짧게 말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 해야 하는 이유는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한테 있다. 그리고 나의 몸은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성결해야 한다. 성결에 관한 세 가지 질문을 하며 내 삶에서 성결이 필요한 곳을 알아보려고 한다. 첫 번째 질문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의 생각과 감정이었던 것 같다. 나의 생각과 감정에 휘말리고 그것에 따라 행 동했다. 하나님 앞에서도 감정적이게 되고 나의 감정에 휘말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도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매번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살기 어려웠던 것 같다. 두 번째 질문은 내 인생에는 기준이 있는가? 이다. 내 인생의 기준은 처음 딱 생각했을 때는 있 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의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니 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번에 성결을 배우면 서 나도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되었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 준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행동한 적도 있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 은 나는 하나님, 내 몸, 생각, 행동에 대해 성결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다. 지 금까지 내가 성결한 삶을 살았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다. 일단 성결 자체 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중요성을 잘 몰랐다. 그리고 성결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기에 되돌아보면 성결한 삶이라고 할 수 없다. 하나님, 내 몸, 생각, 행동에 대한 성결 모든 부분에서 부족했던 것 같다. 이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보며 내가 정말 성결한 삶, 즉 하나님이 주인되는 삶을 살지 못했 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해야 겠다 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성결에 대해 배우면서 내가 지금까지 세상이 만들어준 길로 세상을 살

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죄가 무엇인지 알려면 생각해야 하고, 생각없이 세상을 따라가면 안되기에 스스로 거룩하도록 노력해야겠다. 성결에 대한 나의 정의를 내리면서 당연함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가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당연해도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까지 신경쓰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성결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내가 아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과 이번에 배운 성결의 넓은 의미를 잊지 않아야겠다. 또한 나를 백퍼센트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만 나의 전부를 이해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성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 뿐이기에 내 삶이 주인과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삶을 살아야 겠다.

당신은

세상과

분리되었나요?

4-4 정직에세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 시편 15:2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잠언 2:9-

우리의 정직함이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이 정당한지 살피고 행하는 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관점이 바른지 살피고 행하는 일.

정직을 배운 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

하나님, 정직함을 알려주시고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직함에 대해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수업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직함은 그냥 당연해야 하는 것이고 신뢰를 쌓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던 저에게 정직함에 대해 새로운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직함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마음, 바른 관점이라고 배웠습니다. 또한 정직함은 저의 마음 속에서 저의 생각, 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정말 쉽고 이해할 수 있지만 솔직히 행동과 믿음으로 이어지기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직 저는 너무나 부족하기에 정직함을 바로 행할 수 없고 정직함에 가까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전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정직함에 대해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직함에 대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을 통해 배운 것들이 저의 마음 속에 남아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바로 정직해질 수 없지만 진정한 정직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직함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정직함에 대해 배우면서 정직이 무엇인지, 정직함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직함은 단 순히 솔직한 마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부터 나와야 하는 저의 모습이기에 너 무나도 간절히 필요합니다. 제가 정직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 서, 정직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 는 정직함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가 정직함이 필요 한 것이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직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정말 정직해지고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변화되는 것이 너 무 어렵고 똑같은 저를 보면 두렵습니다. 바로 변화되지 않는 것은 당연할 수 도 있지만 아직 정직함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직이 필요한 이유를 진심으로 더 깨닫고 정직함을 정말 간절히, 간절히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정직함과 너무 멀리 있습니다. 과거의 저는 정직이 당연한 것이기에 하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정직함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정 직함을 행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정직이라고 생각하며 잘못된 정직함을 가지고 생활했습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저의 마음 속에서는 교만함, 천박함, 거짓됨이 너무 많고 유혹들에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 마음 속에 있는 이 죄들을 저의 힘으로 떨쳐내기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죄에 뒤덮 여 있고,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제가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해 주세요. 작은 것들에도 흔들리 고 넘어지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정직함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를 뜻하는 코람데오 삶의 소망이 있습니다. 제 가 정직함을 더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정직한 삶을 살도록 도 와주세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본 것처럼 저도 코람데오 삶을 바라지 않고 계속해서 제가 살고 싶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저도 그 오래된 병자 와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순간의 재미를 찾아 코람데오와 반대되는 길 을 찾으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붙잡아 주세요.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코람데오 삶을 끊임없이 구하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지 않으면 너무나 불행할 것입니다. 오래된 병자처럼 이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면 코람데오 삶의 행복을 느끼지 못할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코람데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리고 정직함을 행할 때 단지 규칙이기에, 누군가 보고 있기에 하는 것이 아니 라 정직한 삶을 사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코람데오 삶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안에 교만함, 내안에 천박함, 내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당신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요?

⁴⁻⁵ 평화에세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 누가복음 2:14 -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 성 프란체스코 '평화의 기도' 중 -

우리가 알아야 하는 평화

우리의 삶에서 평화로움이 찾아올 수 있을까? 매일, 매 순간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각각 다른 사람이 모였기에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에게 평화란 무엇일까? 이번에 배운 가치는 평화로 정말 어려운 가치인 것 같다.이 어려운 가치, 평화에 대해 먼저 성경적 의미를 나누어 볼 것이다. 성경에도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성경적 평화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삶에서 평화를 생각해 보려고 한다. 나, 주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회에 대한 평화로 나누어 각각에 따른 평화를 알아볼 것이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평화롭게 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평화를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나누어 보려고 한다. 이 글을 통해 우리 삶 속에 평화를 생각해보고 평화를 위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 고민해보기를 바란다.

성경적 평화

성경사전에 따른 평화는 단순히 심리적 평안이나 정치와 무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닌 사랑과 화해로 원수와도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정말 평화는 단순히 안정적인 상태라고 볼 수 없는 것 같다. 안정적이라는이유로 평화라고 하기 어렵고 그 순간은 평화로울 수 있지만 언제 갈등과 분

열이 생길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형성된 내적인 조화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까지 미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다른 관계에도 임해야 한다. 이 평화상태를 만들기까지 정말 어려울 수 있지만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화를 이루신 삶을 살았음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평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삶에서의 평화

먼저 알아볼 것은 나에 대한 평화이다. 평화에 대해 배우기 전에 평화를 생각해 보려고 하면 보통 전쟁이 없는 세계나 갈등이 없는 관계로 타인과의 평화를 떠올렸다. 하지만 그 전에 나에 대한 평화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스스로에게서의 평화를 먼저 이루어야 다른 곳에서 평화도 이룰 수있고 자신이 먼저 준비되어야 함을 깨달았다. 이렇게 나의 평화를 깨닫고 지금나의 상태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누구나 그렇듯이 나 또한 평화로울 때도 있고 평화롭지 못할 때도 많다. 내가 나에게 있어서 평화로웠던 순간은 걱정이 없고 심리적으로 안정되었을 때인 것 같다. 아직까지 성경적 평화를 이룬 적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평화를 느낀 적은 있는 것 같다.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은 것처럼 앞으로 나의 평화를 위해 하나님만이유일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다음으로 나의 주변 속에서 평화를 생각해 보았다. 나에 대한 평화에서 말했 듯이 주변에서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평화가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의 평화가 이루어진 후 주변의 평화를 생각해보면 조금 더 그 평화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정말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관계 속에서 평화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자신이 준비되었어도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에 평화를 이루기 더 어려운 것 같다. 그래도 성경적 평화를 통해 나의 평화를 이룬 것처럼 주변 관계에서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주변의 관계도 사랑으로 생활할 수 있다면 평화로움이 찾아올 것이라고 믿는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통해 평화를 이룰 수 있음에 감사한 것 같다. 예수님이 하신 사랑과 용서와 믿음으로 우리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회에서의 평화이다. 지금도 어떤 나라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 또한 전쟁뿐만이 아니더라도 정치 싸움과 빈곤,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평화를 찾아보기에는 어렵다. 나와 주변에 이어 전 세계적인 평화를 이루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다. 성경적 평 화다 아닌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도 이루기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의지 할 곳은 하나님 뿐이다. 나와 관련이 없는 곳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평화가 이 루어지기를 바란다.

보통 평화를 생각하면 폭력의 반대로 폭력에 더 집중하기 쉬워진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화에만 집중하여 생각해봤다. 나, 주변, 모든 사회에 대한 여러가지 평화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은 성경적 평화임을 알게되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로는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음을, 언제 평화가 깨질지 모른다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성경적 평화가 더 이루기 어려울 수 있지만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여 이루는 행복한 평화를 이루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살고 싶어 하면서 예수님과 평화를 함께 생각해본 적은 없었다. 평화로 오셔서, 평화를 전하시며, 평화를 이룬 예수님을 따라 평화의 중요성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앞으로 나의 삶에서 평화를 위해 살며 사랑과 용서로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겠다.

당신은

어떤 평화를

원하시나요?

05

3P기초소양

- 3P창의활동 계획서
- 국토순례 영상 QR / 소감문
- 지역연구 프로젝트
- 문제해결 프로젝트

3P창의활동 계획서

3P창의활동은 학생들이 관심, 비전, 사명에 따라 스스로 기획한 활동으로 학생들이 기획한 바에 따라 주도적으로 하는 수업이다. 다음 학기부터 시작되는 3P창의활동의 계획서를 미리 써 보았다.

1. 활동명

수업명

그들의 시선

팀원

박예솔

의미있는 청중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해 잘 모르거나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을 하는 사람들 등

활동 소개

본 활동은 모든 사회적 약자를 알아보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활동들을 공부하는 활동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공부한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보며 공부함으로써 자신에게만 갇혀 있는 생각을 함께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으로 넓혀가는 활동이다.

활동 목적

모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회적 약자에 대해 더 알아보는 것이다. 나를 포함한 모두가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고 모두 같은 행복을 누려야하는 사람들이지만 너무나 다른 위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여 이 수업을 계획하였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공부하면서 각각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접하여 나의 생각 또한 넓혀간다. 사회적약자에 대해 배우고 알리는 것이 이 활동의 목적이다.

활동 내용

먼저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내용을 책과 영상들을 통해 기본적으로 공부한다. '사회적 약자는 왜 생기는 것일까?',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등 스스로에게 사회적 약자에 관한 질문들을 던지며 그 답을 찾아간다. 여러 매체와 글들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자세히 알아본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회적 약자에 대해 알리기위해 각 주제마다 정리하여 블로그를 올리고 책을 통해 사회적약자를 전하다.

2. 자료 & 재료

[책, 논문, 블로그]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책(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게, '개념' 없는 사회를 위한 강의 등), 사회적 약자를 돕는 단체에 대한 정보

3. 내용 및 활동

Play 탐색하는 과정

1. 2주차:

사회적 약자를 공부할 수 있는 책, 영상들을 조사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수외에 궁금한 점(공부할 것)을 정리하여 계획한다. 사회적 약자에 관한 책을 주문하여 일느다

Performance 공부하는 과정

3~4주차: 사회적 약자의 의미, 종류

5~6주차: 질문1 (ex) 사회적 약자가 받고 있는 피해는?, 사회적 약자가 생기는 이유는?)

7~8주차: 질문2 (ex)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있는 정 책에는?)

9~10주차: 질문3 (ex) 내가 사회적 약자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11~12주차: 질문4 (ex) 사회적 약자가 없는 사회를 만 들기 위해서는?)

매 수업마다 각 주제에 대해 공부하고 정리한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 공부한 후에는 정리한 내용을 블로그에 올려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회적 약자에 대해 알린다.

Practice 다른 사람을 접기고 연결하는 과정

13주차: 사회적 약자를 직접 만나 도움을 주거나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해 더 자세히 공부한다.
14~15주차: 사회적 약자에 대해 공부하면서 배운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소감문을 담은 책을 만든다.
(모든 수업시간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도를 한다)

⁵⁻² 국토순례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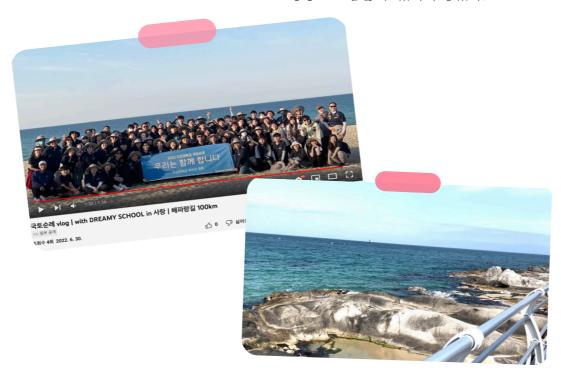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한 영상 편집을 배웠다. 국토순례 때찍은 사진과 영상을 바탕으로 BGM, 효과 등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여 직접 영상을 만들어 보았다.

국토순례 영상 QR코드



국토순례 영상을 만들며..

영상 편집을 배우면서 정말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평소라면 해보지 않 았을 영상 편집을 하면서 어렵지만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에 열심히 만들 수 있었다. 다양한 효과들을 사용해보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가지 영상 편집 기능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드리미학교에서 모두 함께한 국토순례 추억을 영상으로 담을 수 있어서 좋았다.



지역연구 프로젝트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지역기관을 찾아 직접 인터뷰를 하는 프로젝트이다. 또한 관심 직종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다양한 지역기관을 알아볼 수 있는 프로젝트이다.

01

천안 마음샘 아동가족 상담센터

입터뷰 질문 정리

- 1. 아이들이 이 센터에서 가장 많이 받는 치료는 어떤 것이고 어떻게 도움을 주나요?
- 언어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감각통합치료, 인지치료, 심리치료, 부모상담, 집단상담 등 다양한 치료들이 이루어집니다. 아동들을 대상으로는 언어치료와 놀이치료를 많이 하는데 아이들이 스마트폰의 영향과 적정시기에 소통을 못해 언어발달이 뒤쳐져 언어치료를 받습니다. 놀이치료는 발달 놀이치료와 심리 정서 놀이치료로 나누어집니다. 부모 상담과 각각의 아동에 따라 전문 선생님께서 그 아이에게 맞는 수업을 하며 도와줍니다.
- 2. 상담하는 일을 하면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상담하기 어려운 친구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 일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적은 언제인가요?
- 초기에는 많이 어려울 수 있고 상담사에 따라 다른 어려움을 겪는다. 자신이 살아온 것에 따라 화를 내는 사람, 무기력한 사람 등 자신이 어려운 사람이 있다. 하지만 자기 분석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 3. 심리 치료나 상담 받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인식을 개선하기 보다는 내담자의 공감을 수용을 해줘야 합니다. 그 래야 스스로 변화가 되고 상담센터에 오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 4. 제가 아동심리 분야에 봉사하고 싶고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서 이런 경험을 해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만약 아동심리 분야에서 봉사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심리 분야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고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동심리로는 봉사하기 어렵다. 아동 치료나 아동 교육 부분에서는 지역 아 동센터를 통해 봉사할 수 있다.
- 5. 심리분야에 다가갈 때 인간관계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 면에서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상담사는 스스로 부족한 것을 알고 수용하며 나부터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 나 같은 부족한 내담자가 왔을 때 잘 상담할 수 있다. 전문지식과 더 불어 본인한테 충실하고 나부터 준비되는 것이 필요하다.

02 <u>새롭게 알게된 정보</u>

- 상담받는 사람을 내담자라고 부르고 상담과 치료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 아동들을 대상으로는 언어치료와 놀이 치료가 많이 이루어지고 적정시기에 배우지 못해 부족한 부분이 생긴다. 자신이 살아온 것에 따라 어려운 내담자가 다르다.
- 부모 상담도 있고 똑같은 언어치료도 아동들에 따라 각각 다른 치료를 받는다.
- 심리치료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에 대해 무조건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틀에 갇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전에 먼저 내담자의 공감을 수용해줘야 한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 심리 분야 봉사는 경험하기 어렵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한다.
- 지금부터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본인한테 충실하고 자신부터 준비되어야 한다.

인터뷰를 하며..

처음에는 아무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모르는 분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는 것이 막막하고 어려웠다. 하지만 인터뷰를 요청하고 진행하면서 내가 관심있던 분야에 직접 찾아가거나 알아본 적이 없었기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다. 인터뷰 요청을 할 때도 한마디 한마디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느꼈고 다른 곳과 함께 이루어지는 일들 모두 신중한 노력으로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질문들도 그 분야에 깊게 알아보고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어려웠지만 심리 분야에 더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았다. 혼자서 시도해보기 어려운 일이지만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것에 시도해보고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앞으로 나의 관심분야를 더 알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되어 도움이 되었다.

5-4 문제해결 프로젝트

학교 내에서의 문제들을 찾아보고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프로젝트이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찾아볼 수 있고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배울 수 있는 프로젝트이다.

문제해결 프로젝트 계획서

팀원: 김민성, 박예솔, 전지수, 정푸름

1 주제

약속시간에 대한 인식 변화

2 문제 개요

아침운동, 수업시간 시작, 기숙사 퇴실시간, 팀 미팅, 버스 출발시간, 기숙사 입퇴실시간, 청소 시간 등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어서 시간 딜레이 가 생겨 계획에 차질이 생길때가 빈번하게 있다.

(원하는 방향)

시간에 대한 중요성과 시간을 지킴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이익과 비유를 통해 1분,2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임을 사람들의 머릿 속에 각인 시켜 조금이라도 시간 딜레이 줄인다.

3 의미있는 청중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 시간의 중요성을 잊은 사람,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 등

4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와 지식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

"시간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이다." -에센바흐-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하루이다. 단 하루면 인간적인 모든 것을 멸망시킬 수 있고 다시 소생시킬 수도 있다." -소포클레스-

문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

- 학생들이 시간 약속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 학생들이 어떤 시간 약속을 가장 못 지키고 있는지? < 아침운
- 동, 예배, 모임, 과제, 기숙사 입실/퇴실 >
- 상대가 시간을 안지키는 것을 본 적 있는지 (예, 아니오)
- 약속시간을 안지켰을 때 어떤 불이익을 받는가?
- 당신이 생각하는 드리미학교 학생들이 시간 약속을 늦는 이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음)(장문형 텍스트)
- 시간 약속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한지?

5 문제해결 방법 브레인스토밍

- 설문지를 통해 시간약속의 인식 주기
- 어셈블리

시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워 주기. 시간의 중요성 알려주기.

- 현 상태 조사 후 문제 해결.
- 중요한 시간 약속 전 공지.
-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

6 문제해결 방법 정리

- 1. 1번째 어셈블리 때 설문지를 통한 학교에서 나오는 시간과 관련된 문제 알아보기
- 2. 받은 설문지를 정리 후 다음 어셈블리 때 발표자료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문제의 심각성, 현 상황 알려주기 3.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 3. 시간 약쪽을 시키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정리하여 시간의 중요성과, 개선방향을 설명해주기
- 4. 시간과 관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을 카드뉴스로 만들어서 시간에 대한 문제점 인식 변화시키기
 5. 공지나 중요한 시간 약속 전 미리 말해주면서 꾸준히 시간인식을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6. 이후 문제해결 전과 후 비교하며 결과 만들기(변화됨으로써 긍정적인 영향 알려주기)

7 액션플랜

- 1번째 어셈블리 때 설문지 조사를 통해 학교에서 나오는 시간과 관련된 문제 알아보기
- 받은 설문지를 정리(구글 스프레드시트 사용하여 통계 내기)
- 2번째 어셈블리 때 발표자료와 같은 것 (ppt, 카드뉴스 등)을 만들기
- 학생들에게 시간의 중요성,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자세히 알아보기
- 문제점 인식을 변화시키는 방법 찾아보기
- 문제해결 전과 후 비교하며 결과 만들 때

효과적인 비교 방법 알아보기

8 역할분담

- 설문지, 체크리스트 > 모둠원 모두
- 받은 설문지를 정리, 통계정리하기 > 김민성
- 2번째 어셈블리 때 발표자료와 같은 것(ppt, 카드뉴스 등)을 만들기. > 모둠원 모두
- 학생들에게 시간의 중요성,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알려줘 시간에 대한 문제점 인식 변화시키기 > 모둠원 모두

06

미리쓰는 '나는 배웠다'

6 미리쓰는 '나는 배웠다'

드리미학교를 졸업할 때 내가 배웠을 것을 생각해보고 미리 작성하는 '나는 배웠다'이다.

나는 배웠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나를 가장 반기신다는 것을.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나를 드리면 된다는 것을. 그리고 나를 드린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만을 따르는 것임을 나는 배웠다.

나는 배웠다.

무너짐 속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성장을 위해 무너짐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완벽하지 않은 나를 인정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07

공동성결서약문

/ 2022 드리미학교 공동성결서약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대를 본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고자, 이 성결서약식에 참여 합니다.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레11:45)'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이루어가는 존재로서 성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자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고, 구원받은 존재로서 나의 영혼과 몸, 성에 대해 성경적인 가치와 태도를 가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둘, 나와 더불어 타인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귀한 존재임을 믿고 불건전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 사람의 영혼과 육체는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이성 간의 육체적 접촉을 절제하여 결혼하기 전까지 서로의 몸과 마음을 지켜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넷, 성은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받아들이고 한 순간의 감정과 호기심에 의해 성적 관계를 맺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 나와 타인은 누군가의 배우자이자 부모가 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고 성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만들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성이 왜곡되어 표현된 포르노 영상이나 도서, 웹툰 등의 음란한 매체를 보지 않을 것이며 만들거나, 유포, 공유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곱, 성매매나, 유사 성매매, 성폭력 등의 성적 범죄에 조금이라도 가담하지 않으며 성을 파는 일과 사는 일도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덟, 결혼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배우자와만 성관계를 맺을 것이며 배우자를 깊이 사랑하여 상호 간의 대화와 합의로 이루어진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홉, 성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자신의 몸과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절제하고 균형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열, 성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결혼이라고 하는 안전하고도 성경적인 제도를 신성히 여기고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다짐하는 바이며, 하나님과 부모님, 선생님들과 동료들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합니다.

2022년 5월 4일 드리미학교 4기생 박예솔

